



이달의 인터뷰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



“지금 미국·EU와의 FTA체결 등 축산업이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리산업은 정체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다른 축종과 달리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오리업계가 뚝뚝 뭉쳐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산인과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축산업의 영원한 동반자,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축산신문은 명실공히 축산업 전문지로서의 메이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축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축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온 축산신문은 오리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011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축산전문 언론의 중심,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을 만나봤다.

오리산업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상호 회장님을 비롯해 오리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묘년에도 오리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리산업도 마찬가지로지만 우리 축산업이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EU와 FTA가 체결됐고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중국과의 FTA도 우리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리산업은 정체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다른 축종과 달리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축산업

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오리업계가 뚝뚝 뭉쳐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산신문 역시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으로 축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축산신문은

축산신문은 1985년 창간이후 오로지 한 우물을 팠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축산업이 농업 중에서도 당당한 위치에 있지만 창간 당시 우리 축산업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이 반복되는 등 참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신문사 경영환경도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 유혹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업



이달의 인터뷰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

축산이 많아서 경종농가와와의 구분이 모호한데 일반농업도 함께 다루는 복합전문지로 가는 게 어떠한지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은 생산면에서 전체 농업생산의 40%에 육박하는 등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산신문의 역사는 우리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축산인들이 이 점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축산신문이 추구하는 방향

전문지는 내용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성만으로는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지란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산업사회일수록 전문지의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축산신문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올해도 우리 축산업을 대변하고 업종과 업종, 업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면의 전문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축산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웃음)

2010년 축산업계의 최고 이슈

2010년 한 해 동안 축산업계는 FTA를 비롯해 오리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 돼지, 사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구제역 발생, 농협법 개정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FTA는 값싼 외국산 축산

물과 무한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향후 축산업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리의 경우 FTA가 체결된 미국과 유럽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국내 오리산업이 성장할 경우 대만산 오리고기가 수입됐던 것처럼 언제든지 외국산 오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가금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 고병원성AI라고 하면 소, 돼지, 사슴 등에는 구제역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은 지난 1월 7일 경기 북부에서 1차 발생에 이어 4월에 강화에서 발생하고 11월에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경기 양주, 연천, 포천, 김포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화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가축에 걸리는 질병으로 고병원성AI와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법 개정은 축산업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통합 이후 농협내 축

산경제의 존속여부를 논

고 지난 1년간 수많은 논

란이 있었습니다. 하지

만 축산업계의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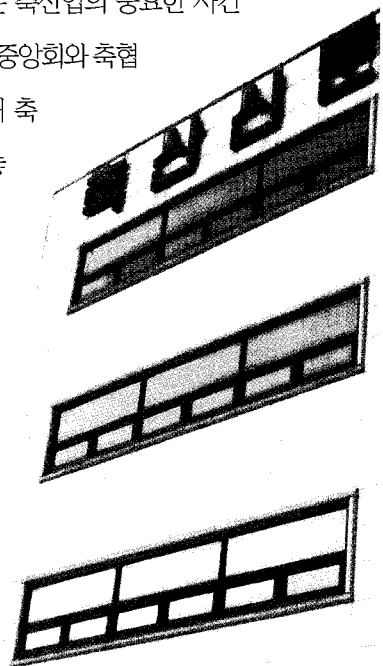
인 노력에 힘입어 축

산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1년 오리업계에 바란다

에 바란다



오리산업은 축산업 중 가장 늦게 전업화, 산업화가 됐지만 지금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종입니다. 특히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오리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리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리산업은 그 동안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온 것이 사실이며 정책적으로도 소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산업규모로 일궈온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서로가 경쟁자이지만 경쟁에 앞서 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산업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오리산업은 고 성장을 거듭하는 기회를 잡았지만 다른 업계에서 호시탐탐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

입니다. 무한 경쟁체제에서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오리업계가 똘똘 뭉친다면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선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오리업계 내부적으로도 대화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계업계의 상황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의 오리업계 모습이 그려집니다.

육계업계 역시 초창기에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

점들이 그리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커지면서 하나 둘씩 쌓여왔던 문제점들이 이제 막 끓아 터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오리업계도 병을 감추기 보다는 스스로 병을 드러내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장단계에 있어 사소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지라도 이들이 하나, 하나 쌓이게 되면 끓아 터지게 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를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AI 등 악성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고병원성AI가 오리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줬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구제역 사태를 보며 다시는 악성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신문은 오리업계와 영원한 동반자

축산신문은 지난 1985년 창간 이후 축산업계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축산업계와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분노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리산업도 마찬가지로 오리협회가 창립된 1992년도부터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소, 돼지, 젓소, 양계 등에 밀려 오리업계는 항상 2인자로 머물러야만 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는 물론, 돼지, 젓소, 양계산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오리는 이제 막 떠오르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축산신문 역시 앞으로는 다른 축종보다 먼저 오리산업을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